“소시·카라 성적 폄하…일본 만화 법적 대응”

‘케이팝 붐…’ 실명 거론…속옷춤 장면까지 담아
소속사 “명예훼손…변호사와 상의 후 강경대처”
일부선 “신한류 악영향 사태파악부터” 신중론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 아니면 ‘‘일부 소수’ 흔들리지 않는 차분한 자세‘

소녀시대와 카라를 소재로 왜곡된 주장을 담은 일본만화의 등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국 걸그룹에 대한 딴지걸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만화는 왜곡과 비방의 정도가 너무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만화에 대한 대응에는 더 이상의 왜곡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대중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일부의 얄팍한 상술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신중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케이팝 붐 날조설 추적’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온라인 한 사이트에 등장한 일본 만화. 한국 정부가 약 20조원을 들여 일본의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통해 한류를 조장하고 있고 한국 연예계는 비리, 성접대로 얼룩져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특히 소녀시대와 카라가 실명으로 등장하고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는 등의 선정적인 그림이 다수 등장한다.

만화의 존재가 알려지자,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카라 소속사 DSP미디어 측은 “일본 변호사와 상의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DSP미디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걸그룹들을 지극히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내용들로 표현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사태를 파악한 후 법적 조치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도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SM과 DSP의 방침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신중하고 냉철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만화의 내용이 상당히 불쾌하지만 한국 언론의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이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한일 누리꾼의 사이버 공방전으로 비화되면서 결국 신한류 열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선 문제의 만화의 출처가 어디며 실제 혐한류의 의도가 있는지, 일본 특유의 선정적인 ‘옐로저널리즘’의 일부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자국 인기 걸그룹 AKB48도 비슷한 내용의 소재로 쓰는 일본에서 만화 한 편만 가지고 이를 마치 일본 전체의 정서인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잘못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녀시대와 카라가 속옷을 입고 춤을 추는 등 선정적인 ‘혐한류’ 일본 만화가 인터넷에 나돌고 있다. 이들의 소속사들은 만화의 출처 등 정확한 사태를 파악한 후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M의 한 관계자도 “만화의 내용이 물론 터무니없지만 우선 만화의 출처가 어디인지부터 먼저 알아보는 등 정확한 사태 파악이 먼저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만화는 소녀시대 외에 고 장자연 사건을 거론하면서 한국 대중문화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등 그대로 방치할 수만도 없어 현명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성형설…성인 비디오 출연설…
걸그룹 딴죽걸기 해도 너무해

일본과 중국, 동남아를 점령한 한국의 걸그룹들. 뜨거운 인기만큼 요즘 그들을 향한 흠집 내기도 날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특히 걸그룹 해외 진출의 대표적인 사례인 소녀시대에 대한 딴지걸기는 도가 지나칠 정도다.

중국의 한 언론 매체는 3일 소녀시대 멤버 윤아의 성형설과 성인비디오 출연설을 제기해 새해부터 논란을 부추겼다.

이 매체는 일본의 성인영화 제작사가 최근 출시한 작품에 윤아가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비디오 표지에 등장한 여자가 윤아와 닮았다며 성형 시술을 해 얼굴형이 달라졌다는 황당한 근거를 제시해 국내 팬들의 빈축을 샀다.

지난해 11월 대만 초시 TV의 연예정보프로그램 ‘명운호호완’은 한국에서 여자 연예인이 성공하려면 성상납을 해야 한다며 뜬금없이 소녀시대 사진을 자료로 공개했다. 이 방송은 마치 소녀시대가 대표적인 성상납 연예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편집했고, 이후 사과 방송을 내보냈지만 이마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해 10월 대만에서 성공리에 마친 소녀시대 단독콘서트에 대해서도 딴지가 이어졌다. 대만의 한 연예 매체는 소녀시대의 공연을 보도하며 ‘립싱크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해 소속사가 “30여 곡을 라이브로 소화했고, 일부 퍼포먼스만 립싱크였다”고 해명을 해야 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한파 촬영 ‘드림하이’ 건강 빨간불

아이유, 5주만에 마이크 OFF



“특수분장 녹초…당분간 드라마 전념”

‘좋은날’로 활동중인 가수 아이유(사진)가 드라마에 전념하고 건강을 위해 5주 만에 음반활동을 중단한다.

지난해 12월10일 KBS 2TV ‘뮤직뱅크’로 활동을 시작한 아이유는 14일부터 3일간 지상파 3사의 음악프로그램 출연을 마지막으로 미니앨범 ‘리얼’의 방송활동을 마친다.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 ‘드림하이’에서 필숙 역을 맡으며 정극 연기에 도전한 아이유는 당분간 드라마에만 전념할 계획이다.

아이유는 음반활동을 마무리한 뒤 바닥난 체력을 회복하는데 신경을 쏟을 계획이다. 아이유는 ‘좋은날’이 약 한달간 주요 음원사이트 1위를 석권하고, ‘뮤직뱅크’ 3주 연속 1위, SBS ‘인기가요’와 Mnet ‘엠 카운트다운’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뜨거운 인기 속에 음반활동과 예능프로그램 출연, 드라마 촬영 등으로 강행군을 벌여왔다. 또한 ‘드림하이’에서 비대한 몸집의 필숙 역을 위해 4시간에 걸쳐 특수분장을 하고,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세트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면서 녹초가 됐다.

아이유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이유의 컨디션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내린 결정이니 팬 여러분들의 이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배용준 목디스크 재발…입원



“영하 날씨에 피로 겹쳐 체력 뚝”

배용준이 목디스크(경추 수핵 탈출증·사진)로 인해 입원해 치료 중이다.

2007년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 당시 낙마해 목 부상을 입었던 배용준은 최근 목디스크가 재발하면서 4일 서울 모처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상태가 악화됐지만 KBS 2TV 월화드라마 ‘드림하이’ 촬영과 연기 지도를 위해 고통을 참으며 무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13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드라마 촬영에 신경을 쓰면서 좋지 않던 목에 무리가 갔다. 날씨도 추운데 촬영장에서 프로듀서로 상주하면서 체력도 함께 나빠진 것 같다”고 밝혔다.

배용준은 치료 경과를 살피며 수술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수술보다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통해 회복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배용준은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참여한 ‘드림하이’에서 4회까지 이사장 정하명으로 특별 출연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입시반 3인방(배수지, 옥택연, 김수현)를 남긴 채 떠난 배용준은 이후 깜짝 재등장 할 것을 예고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에 갑작스런 입원으로 추가 촬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관계자는 “아직 배용준이 후반 등장할 대본이 완성되지 않았다. 빨리 건강을 되찾아 ‘드림하이’ 촬영장에 가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추가 촬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민효린,
관능이란 이런 것…

배우 민효린이 패션&뮤지컬 매거진 제-엔(SEHEN) 화보를 통해 관능적인 자태를 뽐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콘셉트로 촬영된 이 화보에서 민효린은 ‘지킬’과 ‘하이드’라는 상반된 두 인물의 이미지를 연출했다. 사진은 스모키 화장과 블랙컬러로 섹시한 매력을 드러낸 ‘하이드’의 모습.

사진제공 | 스타폭스미디어



아기까지 낳는 시크릿 가든
“이게 뭐니?” 허무엔딩 논란

모든 커플 사랑 맺는 결말 공개…팬들 비난

촬영장 원천 봉쇄, 007작전 대본 전달…. ‘눈물 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뚫렸다.

16일 마지막 회 방송까지 2회를 남겨둔 SBS 인기드라마 ‘시크릿 가든’(극본 김은숙·연출 신우철·사진)의 결말이 공개됐다.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 등 결말을 두고 찬반양론까지 벌어지며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던 만큼 결말이 공개되자 팬들은 “허무하다”는 반응이고, 제작사 측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현재 20부 대본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지만 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 결말은 시청자들이 원했던 ‘해피엔딩’. 또한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길라임(하지원)과 김주원(현빈), 오스카(윤상현)와 윤슬(김사랑) 등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커플들도 사랑의 결실을 본다. 하지만 마지막 회에서 제작진이 하이라이트로 여기고 있던 라임과 주원의 2세 이야기까지 공개되자 ‘허무하다’는 반응을 넘어 비난으로 확산되고 있다. 16일 본방송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던 팬들에게는 허탈한 심경만 안겨주고 있기 때문.

제작사인 화앤담 픽쳐스 관계자는 “20부가 완성된 것도 아닌데 결말이 공개돼 제작진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며 “결말에 대한 구성은 잡힌 상태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에피소드 등이 바뀔 수 있다. 김은숙 작가가 여러 가지를 구상중이니 방송으로 결말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스타 온라인

‘그 남자’ 패러디 ‘그 회사’ 빵 터지네

SBS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OST 중 현빈이 부른 ‘그 남자’를 패러디한 ‘그 회사’가 포털 사이트에서 화제이다.

‘그 회사’는 “한 회사는 오늘도 야근합니다. 그 회사는 열심히 일만 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회사는 회의를 하고 있어요”, “조금만 일찍 가자 조금만 … 하루 칼퇴하면 이틀 철야하는 늘 일만 하는 난 지금도 피곤해서 이렇게 좁니다”, “또 하나마나 회의 또 하면 뭘 해. 회식 제발 연차 쓰고 쉬고 오면 안 돼요” 등 직장인의 애환을 절절하게 담은 노랫말로 보는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우리 회사 사장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 “샐러리맨의 심정이 300% 공감된다”, “혹시 김비서가 쓴 가사가 아니냐”라며 웃음보를 터뜨렸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